

환경인식이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입지에 따른 분쟁을 경험했거나 현재 분쟁중인 주변지역의 만18세이상 주민과 전국 시.군.구 환경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가치관,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편집부>

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기피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환경분쟁은 환경피해 및 오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특정 시설입지를 통한 각종 개발효과 및 혜택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분쟁 당사자간 타협과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환경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표출한 의견이 내재된 진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변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 방지 및 해결의 실마리는 외부에 표출된 의견보다 가변성이 적은 분쟁 당사자들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마음에 내재된 가치정보의 축적은 분쟁 당사자간 공감대 형성과 상호간 오해 감소로 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입지에 따른 분쟁을 경험했거나 현재 분쟁중인 주변 지역의 만 18세 이상 주민과 전국 시.군.구 환경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가치관,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각 변수간 상호관계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주민과 공무원의 환경분쟁에 관한 의견

전체 응답주민중 92.3%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입지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전체응답 주민의 69.1%가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전체 공무원중 96.9%가 주민이 해당 시설입지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있었고, 주민과 공무원간에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의 설치 반대이유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은 경제적 보상이나 재산적 피해보다는 계획수립시 주민의사의 무시나 행정당국의 밀실행정 등 불신때문에 시설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반대이유는 주민중 약 60% 정도가 환경오염 및 피해 등 환경적인 이유를 꼽은 반면, 공무원은 주민이 해당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환경적인 이유(약 37%) 못지않게 지역이기주의 또는 시설을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약 34%)이라고 생각하였다.

전체 응답주민중 약 46%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입지와 관련된 시위.농성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과반수 이상은 분쟁에 대한 심정적인 동조수준에 머물고 적



극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 전체 응답주민과 공무원 양쪽 모두 분쟁해결방안으로써 대화(23.9%), 주민대책위원회(19.2%) 및 공청회.설명회(13.8%) 등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행당국이 주민이 반대하는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를 강행할 경우, 주민들은 강경하게 끝까지 반대하겠다 37.5%,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 32.3%, 자신의 반대주장을 포기해 버리겠다 27.3%였으며, 반면 공무원은 주민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입지를 계속 반대할 경우, 대화로써 분쟁을 해결하겠다 56.4%, 끝까지 강경하게 계획을 밀어붙이겠다 37.9%로 분석되었다.

3. 주민과 공무원의 가치관 및 환경태도

전체 응답자가 지닌 가치관 파악을 위해 "성장-우선주의-생태지향주의"성향을 조사한 결과, 성장우선적 성향은 13.7%, 중간성향은 68.3%, 생태지향적 성향은 18.0%로 나타났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입지의 근접거리에 있어서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들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보다 생태지향적 성향이 강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분쟁을 겪은 지역주민이 보다 더 생태지향적이라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분쟁을 경험하면서 주민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가치체계이론)된다.(주민과 공무원들은 별다른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한편 주민과 공무원 모두 지역개발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로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일수록, 농촌주민일수록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이 그 외 지역의 주민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공무원보다는 주민들이 더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4. 환경인식이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

“가치-태도-의견”의 관계를 통해 “환경가치-환경에 대한 태도-환경분쟁에 대한 의견”의 관계를 분석하면, 사람들이 지닌 가치관보다는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가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르면,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에도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분쟁 당사자간의 진의파악도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되며, 즉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오염 및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태도를 조사하고 그 성향을 파악하게 되면, 환경분쟁에 대한 주민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어, 타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분쟁을 미연에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이해 당사자간 신뢰 회복, 기피시설 계획과정의 공개성 보장과 계획수립에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및 기피시설에 대한 교육과 홍보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기피시설입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반영되어야 한다.

<표 1>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분쟁간의 관계

	가치관 유형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				
		지역개발 관심도	환경문제 관심도	환경오염 심각성 인지정도	각종지역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	
					기피시설	대규모개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입지계획에 대한 인지도	×	○	○	×	○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입지계획에 대한 찬반의견	×	×	○	○	○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입지 반대 이유	○	×	○	○	○	○
환경분쟁해결방안의 효과	제도적 방안	×	×	×	○	○
	비제도적 방안	×	○	○	×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관련 시위·농성의 참여정도	○	○	○	○	○	○
시설입지반대 또는 계획 강행시 대처방법	×	○	○	○	○	○

주) ○는 가치관 또는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끼침을 의미하고, ×는 가치관 또는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에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의미함(알파=0.5).

<표 2> 주민과 공무원의 견해 차이

주 민	공 무 원
- 환경분쟁시 주민과 행정당국간 서로 대화 및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번째 이유 : 정보부족(27.2%) • 두번째 이유 : 상대방 고집(19.0%) • 세번째 이유 : 불신감(17.6%) 	- 환경분쟁시 주민과 행정당국간 서로 대화 및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번째 이유 : 상대방 고집(30.8%) • 두번째 이유 : 지나친 보상요구(27.0%) • 세번째 이유 : 정보부족/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12.9%)
-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피시설입지 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에 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공청회를 통하는 방식 : 39.8% • 전문가에 의해 계획을 마련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 18.6% •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 : 41.3% • 기타 : 0.3% 	-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피시설입지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에 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공청회를 통하는 방식 : 36.0% • 전문가에 의해 계획을 마련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 36.7% •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 : 26.9% • 기타 : 0.5%
- 기피시설의 입지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계획기준에 의한 장소 : 21.0% • 환경보전이 고려된 장소 : 34.3% •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장소 : 34.3% • 주민/전문가의견이 반영된 장소 : 10.5% 	- 기피시설의 입지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계획기준에 의한 장소 : 27.0% • 환경보전이 고려된 장소 : 29.6% •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장소 : 21.7% • 주민/전문가의견이 반영된 장소 : 21.7%